

가금위생



오 경 록

남덕에스피에프 대표/의학박사

인수공통 감염증인 리스테리아감염증

리스테리아 감염증은 리스테리아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진)에 의한 감염증으로 사람 이외에 가축이나 가금에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증이다. 리스테리아균은 토양이나 수중에서도 존재하고 동식물을 위시하여 자연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있다.

당초에 본 감염증상은 산발적인 급성 감염증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 미국에서는 우유, 치즈, 야채, 식육 등의 식품을 원인으로 한 집단발생이 1980년대에 다수 보고 되고 있어 현재는 식품 위생 분야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숙주 ; 본균의 숙주영역은 매우 넓으며, 포유동물부터 조류까지의 모든 동물, 자연환경도 포함된다.

병원체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진

분포, 역학 :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있고, 숙주영역도 넓기 때문에 리스테리아균과 접촉을 회피하는 것은 어렵다. 통상 동물에서는 보균하여도 무증상이지만, 때로는 유산, 사산의 원인이 된다. 조류에서는 가고시마현의

62일령의 육용 토종닭에서 뇌염의 발생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 내용은 450수중 5수에서 발생하였고, 감염경로로서는 장마로 인하여 토양중의 리스테리아균이 토양 표면에 노출되었고, 이것을 토종닭이 섭취하기 쉽게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사람에서의 감염경로는 식품 매개가 위주로 생 그리고 가공품을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한 식품에 존재하며 그중에서도 생우유, 유제품의 오염율이 높은 것이 보고 되고 있다. 또한 식육 그리고 육제품도 중요한 오염 가능 식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서도 각각 35% 전후의 오염이 인정되고 있다. 계란의 오염도 인정되고 있지만, 그 유래가 계란 내 오염인지, 난각의 오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본 균의 분포는 광범위하여 각가지 식품이 그 가공 그리고 제조과정 중에 오염될 위험성이 있고, 우유, 식육 등의 동물성 식품은 특히 그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식

품의 저온 유통이 발달하여 식품을 장기 보존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식품 매개 감염증으로 주목을 하게 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2,500명이 중증 리스테리아감염증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약 5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매년 미국내에서 식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발예로서는 1998년에 오염된 핫도그에 의해 22개주에서 101명이 발병하고 21명이 사망하였다. 1985년에는 LA에서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우유로 만든 연성 치즈에 의해 142명이 발병하고 46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1981년에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양의 분(糞)을 이용한 밭에서 생산한 양배추를 사용한 사라다에 의해 41명이 발병하고 18명이 사망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92년에 돼지 혀 가공품에 의해 279명에 발병하고, 63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이태리에서 급성 위장염을 주증상으로 하는 집단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본에서 사람의 리스테리아 감염증은 1958년 8월 야마가타현에서 수막염의 증상을 최초로 하여 이후 매년 발생이 국내 각 지역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발생은 산발적이며 집단 발생 예는 없었다. 일본에서의 건강한 사람의 보균율은 1972년에 0.5%, 1989년에 1.3%라고 보고하였다.

사람에서의 리스테리아 감염증의 증상은 식품 매개 감염증이지만 세균성 식중독의 전형적인 급성 위장염 증상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잠복기간은 평균 3주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에서는 24시간 미만으로부터 대부분이 3일이상이지만 1개월 이상의 경우도 있어 광범위하다. 그래서 집단 발생의 경우에도 발생이 일정하지 않아 원인식품을 추정하기가 곤란하다. 건강한 성인에서는 무증상으로 경과하는 수가 많지만 감염초기에는 권태감, 미열을 동반한 인플루엔자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

감수성은 건강상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집단 발생 예에서는 임신부, 태아, 신생아에 감염 발생율이 높고, 산발예에서는 스테로이드계 약물 사용 환자, 암, 백혈병 등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서 감염 발생율이 높다.

증상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막염으로 38~39℃의 발열, 근육통, 구토 등이 있고, 의식장애와 경련이 있을 수도 있다. 임신부는 가벼운 인플루엔자와 같은 증상에서도 태아는 영향을 크게 받아 태아의 감염으로 조산, 신생아의 수막염, 패혈증 또는 태아의 사망, 사산을 일으킬 수 있다.

태아 패혈증에서는 임신부로부터 자궁내의 태아에 수직감염이 일어나고 유산이나 조산의 원인이 된다. 임신부는 발열, 오한, 등 부위 통증을 주증상으로 하고, 태아는 출생 후 단시일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조류 및 동물에서의 증상은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사료 등을 섭취함에 따라 구강 점막 손상 등으로 균이 침입하여 소나 산양에서는 뇌염, 패혈증, 유산을 일으키고 토종닭의 발생보고에서는 뇌염, 목의 뒤틀림, 안면부종, 졸음 등의 증상이 보인다.

(JSPD, 2004,12)